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2009년 교회표어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성령강림절 후 제16주】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오소서, 평화의 임금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8(통9). 거룩 거룩 거룩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날마다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아침마다 꽃잎을 활짝 열어 감사의 찬양을 올리는 나팔꽃처럼 신선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지난날의 아픔과 앞날에 대한 염려로 오늘의 기쁨을 묶어두지 않게 해주십시오. 당당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늘은 기독교교육진흥주일입니다. 주님의 몸 되신 교회 공동체의 내일의 역군들을 위해 애쓰는 이들을 돌아봐 주십시오.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도 ‘신앙교육’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감당하기 위해 헌신하는 이들입니다. 주님, 교사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 학생들의 마음에 예수의 정신이 싹트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마5:3,4
♠ 교 독 문	112. 교회교육주일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대표기도	I. 장성호 선생 II. 김인걸 장로
응 답 송	찬양대
찬 양	560.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성경봉독	I. 창1:25
	II. 출13:3-10
찬 양	찬양대
말 씬	I.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II. 우리가 들려줄 이야기
거둠기도	다함께

- 찬 송 563(통411). 예수 사랑하심을 다함께
- ♠ 봉 헌 317(통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 다함께
-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 공동체 소식 인도자
-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자신이 무엇을 반복하며 생활하는지 살피며 살아가십시오.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반복하며 사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주님의 은혜를 되새기기보다는 채우지 못한 욕망과 부질 없는 염려와 걱정을 되새김질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인도해오신 주님을 감사히 고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늘 끊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멘.

-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함께
-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동호회	이사야서 공부 : 김재흥 목사
아름답도다 형제 자매의 사귄	기도: 손성현 전도사

다음 주 예 배 위 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이성운 전도사 김기석 목사	이수정 선생 청년부	천승호 학생 청년부

9월	영접위원	김인걸 박두석 김대근 문영혜 이건화 박경원
	헌금위원	한완식 박혜경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진리를 말하는 것

각 사람이 외적 요구에 대한 부합이 아니라 내적 진리에 대한 충실 안에 서 말하는 대화의 과정은 우리의 공동체적 관계를 점검하고 비판하며 정화해 준다. 그것은 언약으로서의 진리를 추구해 가는 과정이다. 이런 대화가 계속 진행되면서 더욱 큰 진리가 드러나는데, 이는 우리 내면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진리다. 이는 우리 각자는 개인의 세계 속에 고립되어 있는 자율적인 행위자가 아니라 서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존재라는 진리다. 공동체는 우리가 우리의 내적 본성을 추구할 때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창조된 본성은 우리를 서로와의 그리고 우리가 아는 모든 것과의 순종의 관계로 부른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만 성장한다. 즉, 공동체는 우리가 내적 응답을 대화와 언약의 관계를 통해 외적으로 표현할 때 비로소 성장할 수 있다.

관계적 진리에 대한 순종은 분명 복잡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디트리히 본회퍼는 “진리를 말하는 것”이라는 에세이에서 그것이 지닌 모호성을 일부 묘사한 바 있다. 본회퍼는 이 글을 썼을 뿐 아니라, 나치의 손에 죽임을 당하기까지 진리에 순종하며 따랐던 인물이므로, 진리의 복잡함에 대한 그의 말은 내게 특별한 무게로 다가온다.

‘진리를 말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현실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그에 대한 진지한 숙고의 문제이기도 하다. 한 사람이 처한 삶의 실제 상황이 복잡적일수록 ‘진리를 말하는 것’에 대한 책임과 어려움이 더 커진다. 예를 들어, 어떤 교사가 수업중에 한 아이에게 아버지가 종종 술에 취해 집에 오시는 것이 사실이냐고 묻는다고 하자. 그것은 사실이지만 아이는 그것을 부인한다. ... 그 아이는, 이 교사의 행동은 자신의 집안 문제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며 따라서 거부해야 한다고 느낀다. 자기 집안일은 학교에서 수업중에 말할 문제가 아닌 것이다. ... 교사의 질문에 대해 ‘아니오’라고 했다는 것만 보면, 그 아이의 대답은 분명 거짓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가족은 독립적인 기관이며 따라서 교사는 거기에 간섭할 권한이 없다는 진리를 표현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 아이의 대답은 물론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거짓말에는 더 많은 진리가 담겨 있

다. 다시 말해, 그 대답은 그 아이가 반 아이들 앞에서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었을 경우보다, 더 실재와 부합한다.

이 이야기는 내게 가르침에서 진리에 순종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교훈을 주었다. 먼저 이 이야기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학생들이 삶을 영위하는 더 큰 진리의 공동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 이 이야기는, 교실 안에는 다른 많은 언약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 가르치는 이는 그 언약을 감지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 내가 학생들의 그 관계들 속으로 들어갈 때에만 나의 가르침이 그 관계들을 강화시켜 주고 확장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또한 본회퍼는, 내가 가끔 진리라는 이름으로, 즉 학생들과 나 사이에 존재하는 언약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것, 만일 내가 사실이라는 무기를 무자비하게 휘두른다면 (“방금 내가 한 말은 완전히 틀렸어”) 학생들은 진리 속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 진리는 사랑 안에서 말해지지 않으면 결코 학생들에게 알려질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준다.

또한 나는 본회퍼의 이야기를 생각하면 학생들이 이야기 속의 그 아이처럼 궁지에 몰리는 일이 없는 교실을 만들기를 갈망하게 된다. 그 아이에게는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는 배움의 공간, 그의 삶에 있는 어두운 사실들이 교육의 과정을 통해 빛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여기서도 나는 학급이 심리치료 그룹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교사가 당일 교과를 제쳐두고, 그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교실이 어떻게든 학생들의 삶 속에 있는 관계와 갈등을 포용해 줄 수 없다면, 학생들은 계속 교사에게 ‘거짓말’을 할 것이고, 배움의 과정을 나머지 삶으로부터 계속 떼어놓을 것이다. 아무리 잘해보았자, 그러한 교육은 학생들 안에 숨겨진 개인적 문제들로 인해 계속 비틀거릴 뿐이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 그것은, 삶과 삶이 따로 돌아가며 결코 서로 만나지 않는 일종의 정신 분열증을 만들어 내고 만다.

교실에서 진리에 대한 순종을 실천하는 것은 복합적이고 어려운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순종의 개념에 깊이 젖어들어 순종이란 진리를 기계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 학과와 세계 사이에 존재하는 언약을 민감하게 느끼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여기에는 ‘이렇게 하면 된다’는 식의 확실한 기술 같은 것은 없다.

- 파커 팔머,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 중에서

■ 마/음/으/조/워/는/글

길 잃은 날의 지혜

큰 것을 잃어 버렸을 때는 / 작은 진실부터 살려가십시오

큰 강물이 말라갈 때는 / 작은 물길부터 살피주십시오

꽃과 열매를 보려거든 먼저 / 흙과 뿌리를 보살피 주십시오

오늘 비록 앞이 안 보인다고
그저 손 놓고 흘러가지 마십시오

현실을 긍정하고 세상을 배우면서도
세상을 닮지 마십시오 세상을 따르지 마십시오

작은 일 작은 옳음 작은 차이
작은 진보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작은 것 속에 이미 큰 길로 나가는 빛이 있고
큰 것은 작은 것들을 비추는 방편일 뿐입니다

현실 속에 생활 속에 이미 와 있는
좋은 세상을 앞서 사는 희망이 되십시오

- 박노해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 헌금영수기 ◇

십일조헌금:

김철수 유영남 김신옥 김준호 곽혜자 김훈동 유경순 김혜권 배근수
 김금순 이봉옥 이예정 임주빈 최현옥 황지현 허신열 조현권 전세종
 김정민 송동준 김진경 이성운 박소진

월정헌금:

고속이 권 순 윤정화 김남종 이복순 이갑재 이성범 이재구 황선희
 하정석 이명희 배부례 정원석 김현영 김경순 이경남 김 극

감사헌금:

방문성 박혜경 김윤숙 하재두 김대규 권현숙 이성범 배삼순 권호진
 전성오 오정숙 전세종 김정민 이정현 김민아 김 진 김순옥 무명3

녹색꿈 헌금:

김철수 정완수 김재광 김정길 최숙화 류준모 심호선 무명1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장 혜 숙	박 성 실	송 임 회	조 순 덕
베들레헴	노 순 옥	정 경 례	노 순 옥	정 경 례
안 디 옥	임 정 자	임 정 자	정 복 순	차 혜 심
가 나 안	문 영 혜	이 명 희	문 영 혜	이 명 희
갈 릴 리	안 정 숙	진 정 숙	박 애 순	안 정 숙
베 다 니	박 흥 재	곽 권 희	송 의 섭	김 경 수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박 효 선	홍 복 선
엠 마 오	최 숙 화	권 미 정	이 갑 재	권 미 정
에 베 소	이 순 정	김 금 순	이 봉 옥	유 영 남
빌 립 보	이 형 숙	권 미 숙	이 형 숙	권 미 숙
가 버 나 움	안 흥 숙	오 현 정	오 현 정	정 현 주
나 사 랫	정 영 선	백 혜 숙	백 혜 숙	김 희 우
갈 라 디 아	유 경 순	김 명 희	김 수 진	유 경 순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영 란	이 영 란	윤 정 화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박 혜 경	최 영 혜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기독교교육진흥주일** : 오늘은 감리교회가 정한 기독교교육진흥주일입니다. 올바른 예수적 가치를 가르치기 위해 애쓰는 교사들 많이 격려해주시고 위해서 기도해주시시오.
2. **동호회** : 오늘 오후집회는 동호회로 모입니다. 환경동호회가 주관하는 가방 만들기 행사가 교육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3. **추도예배** : 고 장민숙 사모님의 1주기 추도예배가 오늘 오후 4시에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4. **예수포럼** : 한국기독교연구소가 주관하는 월례 예수포럼이 21일(월) 저녁6시에 우리교회에서 열립니다. 강사는 홍세화 선생님이요 주제는 ‘한국사회와 톨레랑스’ 입니다.
5. **주차** : 가급적이면 교회 마당에 차를 세우는 일을 자제해주시시오. (장애인 차량은 예외)
6. **신앙실천** : 22일(화)은 ‘차 없는 날’입니다. 차보다는 걷기와 자전거를 이용해 이동해보시기 바랍니다.

* 식당 봉사 : 베다니 속 (다음 주 : 베다니 속)

* 설거지 봉사 : 김대근 최종미 (다음 주 : 이준하 박시내)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